

어명소 2차관, 판교저유소 찾아 석유수급 현황 점검

- “국내 석유수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 을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3일(토) 오후 3시, 대한송유관 공사를 방문하여 집단운송거부 관련 휘발유,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어 차관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로부터 전국 저유소 현황 및 석유 제품 입·출하 실태와 애로사항을 보고받고,
 - “정부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(BCT)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전국 항만 반·출입량이 평시 대비 82%(3일 10시 기준)에 달하는 등 화물운송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”고 밝히며,

 - “다만, 석유제품의 경우,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으로, 원활한 수급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- 또한, 어 차관은 “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, 피해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2022. 12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